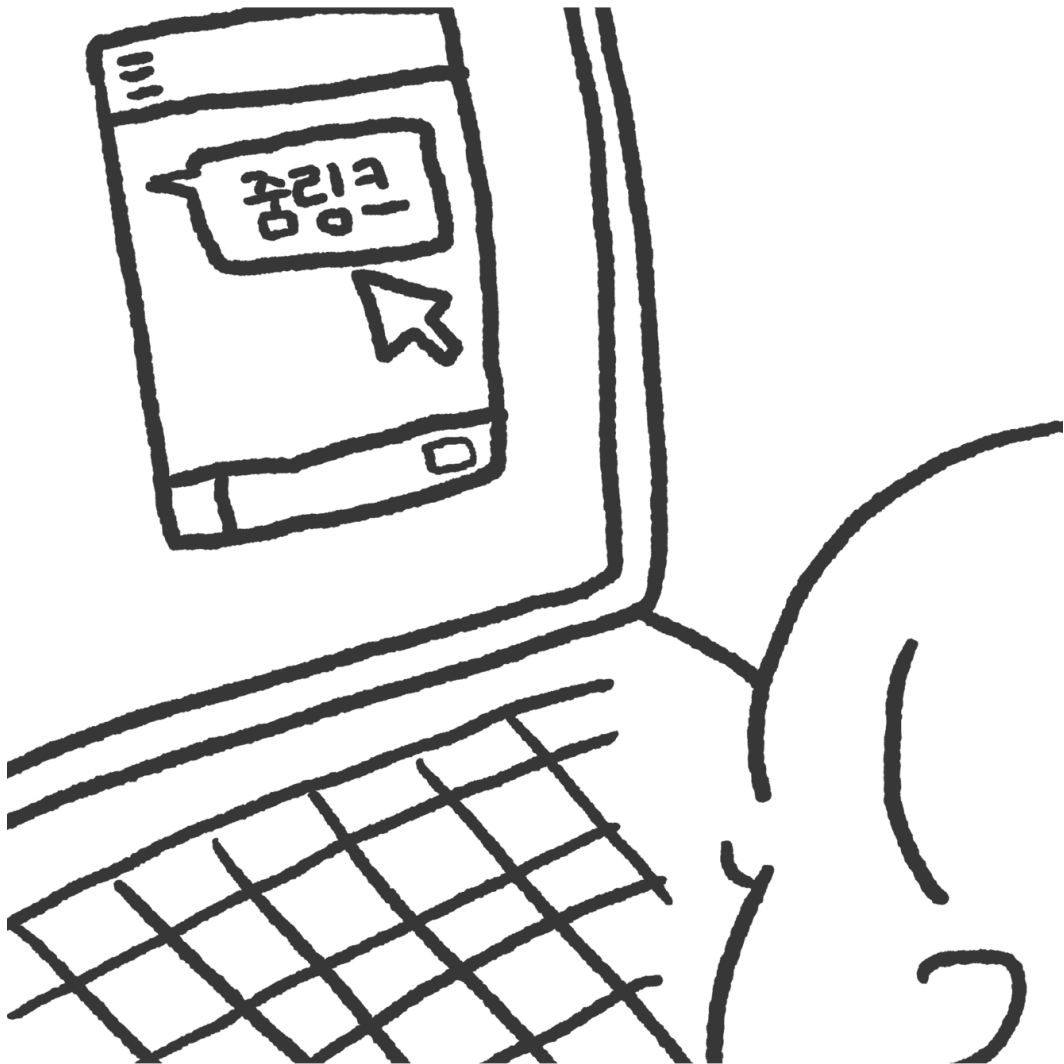


때는 20년 3월, 코로나가 막 터지고  
온라인 강의를 처음 시행하던 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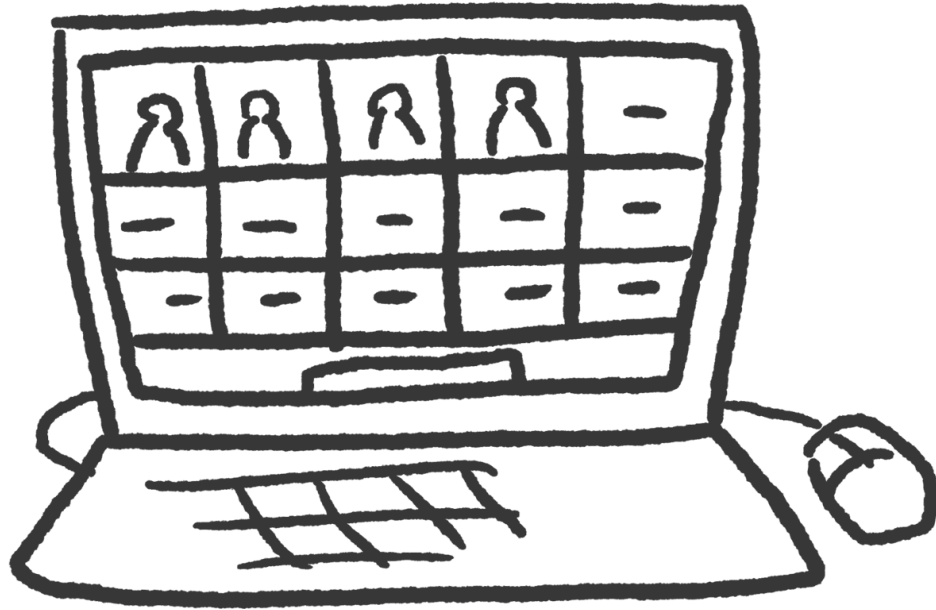


과에서 하는 신입생 오티도  
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

별 생각없이 줌링크에 접속하는 순간  
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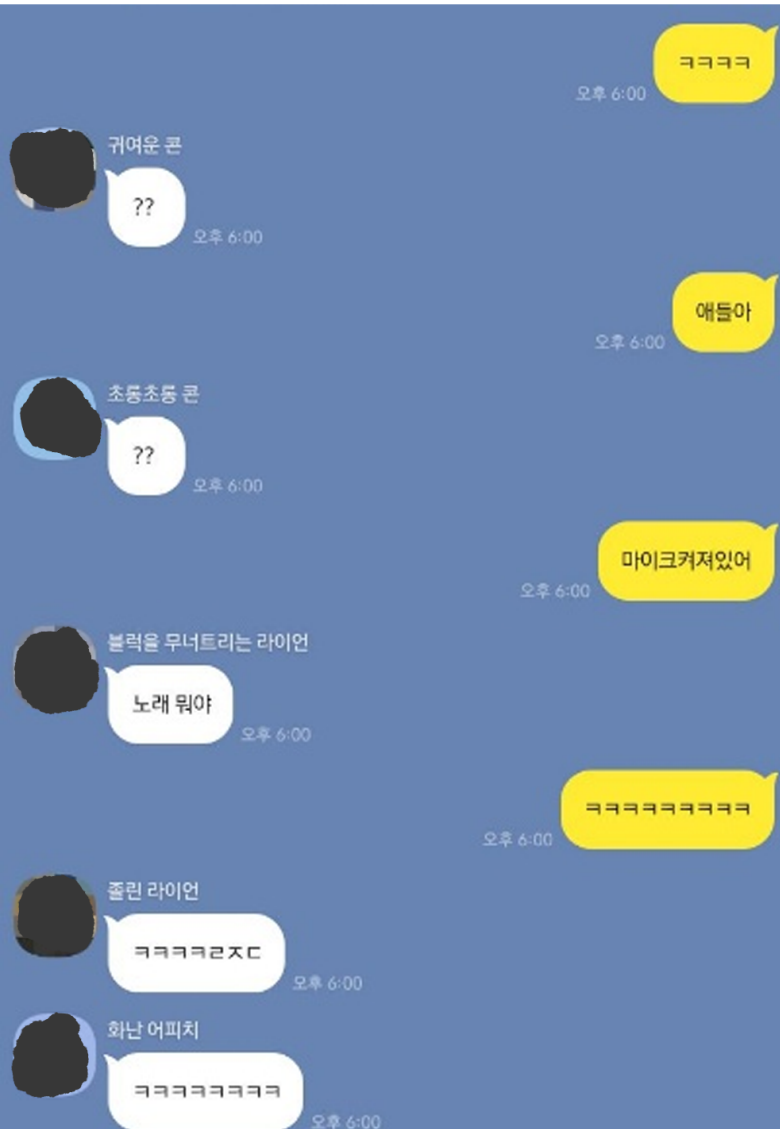
흐음~  
(대충 감미로운 발라드소리)



온라인 수업이 익숙지 않다보니  
마이크가 켜진줄 모르고 누군가가 노래를 부른 것

(생각보다 잘 부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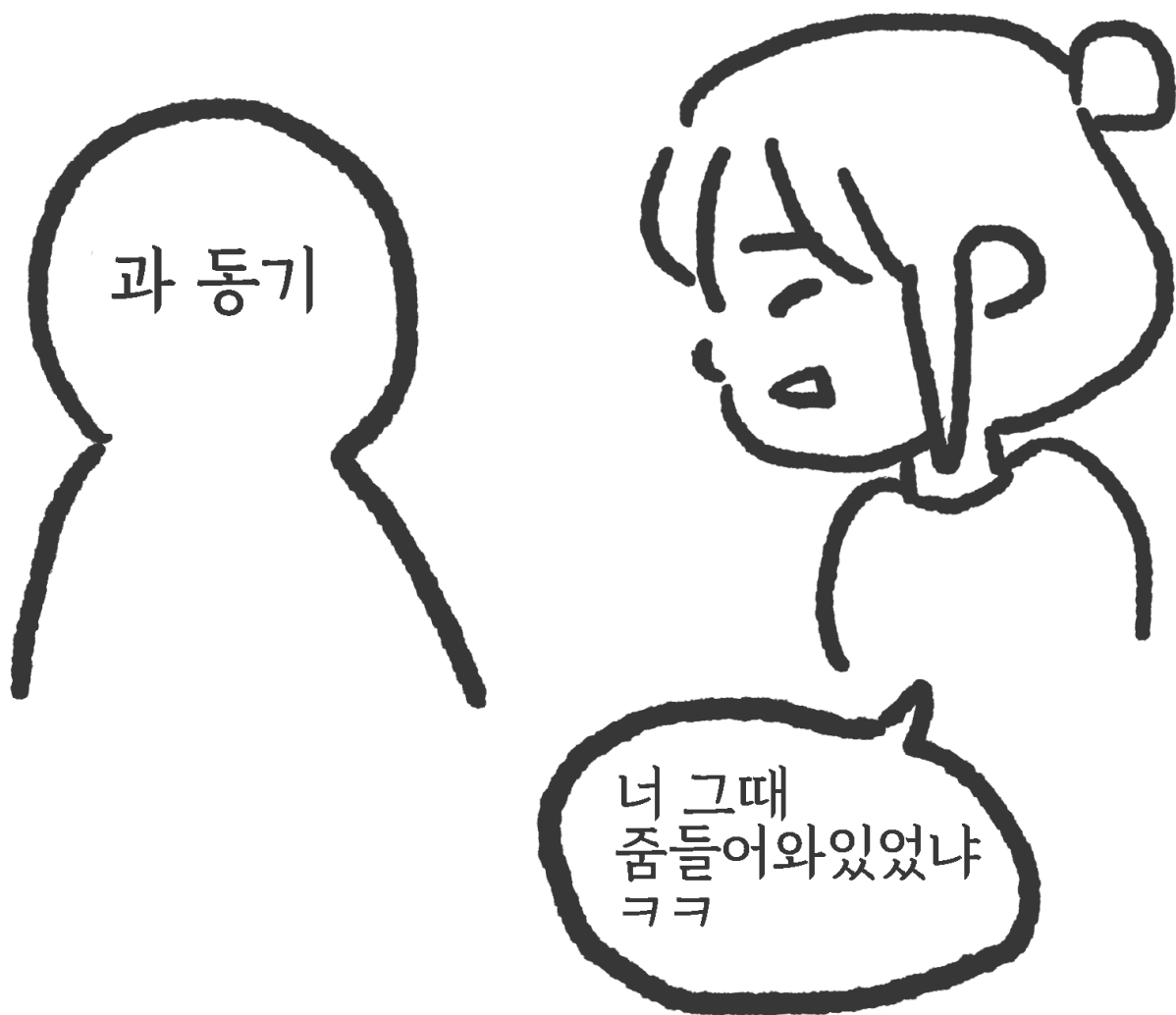
## 과 오티였던 만큼 과톡방에서 칭찬이 오고가고



## 노래소리는 곧 끊겼다



후에 친한 동기에게 재미삼아  
그때 노랫소리에 관해서 물었다가



나만 아는 비밀이 생겨버렸다

ㅎㅎ  
그거난덤  
민망해서 강  
가만히있었

